



간호대학생의 학년 별 스트레스 근원과 대처방식

A study in relation to stress resources and stress coping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Choi, Myeongyun · Hong, Jisu · Jang, Hyojeong · Kim, Dahye · Oh, Heehyeon · Park, Chaehwan · Yang, Dahee · Yu, Hyunji · Yuk, Yeongju

from Dept. of Nursing Chungcheong University, R. O. Korea

Professor Kim, Heonkyeong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발달 과업 수행 중 대학이라는 환경적 변화로 많은 혼란과 갈등 경험 (박재원, 서수교, 2006)

-특히, 간호 대학생은 타 학과에 비해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임상실습, 국가시험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 (송주은, 채현주, 2014; Pulido-Martos et al, 2012)

○ 연구의 목적

1.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학년 별에 따른 스트레스 근원 정도를 파악한다.
3. 학년 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를 파악한다.
4. 스트레스 근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연구설계 -서술적 조사 연구
-상관관계 연구

연구대상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소재의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중 380명

연구도구 1) 스트레스 근원 도구
최해림(1986)의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 질문지 중 스트레스 근원에 관한 항목들을 수정, 보완하여 이용.
(본 연구 신뢰도 Cronbach's α = .78~.88)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
Folkman와 Lazarus(1985)가 개발한 6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정된 대처방식 척도를 토대로 하여 김정희(1987)가 요인 분석 과정을 거쳐서 만든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 (문제중심적 대처 Cronbach's α = .870, 사회적 지지대처 .684, 정서중심적 .765, 소망적 사고 .662)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자료수집기간 : 2016년 4월 20일 ~ 2016년 6월18일

자료 분석 SPSS WIN 2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t-test, Scheffe test, 상관분석, 다중반응분석 사용

III. 연구결과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근원>

변수	분류	항목	1	2	3	4	총	F	P
			M±SD						
스트레스 근원	스트레스 상황	대학생활	16.01 ±5.344	15.18 ±4.583	15.92 ±4.078	15.38 ±4.412	15.59 ±4.734	0.747	.525
		가정/경제생활	22.98 ±10.688	19.37 ±8.061	20.71 ±8.803	21.38 ±9.486	21.16 ±9.460	3.013	.030
		친구/대인관계	26.13 ±10.495	23.98 ±8.074	23.04 ±7.58	24.58 ±9.151	24.67 ±9.122	1.802	.146
		학생 자신	29.88 ±9.631	29.23 ±9.013	31.00 ±10.592	31.63 ±10.521	30.23 ±9.800	1.185	.315
		주위환경	15.59 ±5.743	14.78 ±5.003	16.24 ±5.129	15.91 ±5.682	15.50 ±5.428	1.192	.313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변수	분류	항목	1	2	3	4	총	F	P
			M±SD						
대처방식	적극적 대처	문제중심	32.83 ±10.020	30.42 ±10.105	30.08 ±10.243	31.58 ±10.644	31.41 ±10.243	1.449	.228
		사회적 지지	9.21 ±3.795	8.66 ±3.166	8.35 ±4.166	9.70 ±3.697	9.03 ±3.654	2.098	.100
	소극적 대처	정서중심	29.67 ±8.933	30.21 ±8.917	31.73 ±8.251	31.52 ±9.324	30.55 ±8.938	1.091	.353
		소망적 사고	15.59 ±4.722	15.03 ±5.889	15.24 ±4.421	15.27 ±5.289	15.29 ±5.197	.240	.869

<스트레스 근원과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

variables	N	Pearson	P
스트레스 근원	380	.290**	.000
스트레스 대처방식	380	.290**	.000

✓ 간호대학생 학년별 스트레스 근원 5가지를 영역별로 ANOVA를 시행한 결과, 대학생활 P=.525, 가정/경제생활 P=.030, 친구/대인관계영역 P=.140, 학생자신 P=.313, 주위환경 P=.313 나왔으며, 가정/경제생활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유의하지 않음.

✓ 간호대학생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중심적 대처를 의미하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왔음.

학년	%	문항	대처방식
1학년	34.4%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문제중심적 대처
	34.1%	그 일을 잊기 위하여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정서완화적 대처
2학년	39.7%	그 일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 내려고 협상을 하거나 타협한다.	문제중심적 대처
	39.4%	그 일에 대하여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회적 지지추구
3학년	17.5%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이 안되면 그 다음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인다.	문제중심적 대처
	17.3%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스스로 일깨운다.	
4학년	28.7%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버린다.	사회적 지지추구
	27.3%	다른 사람들의 동경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소망적 사고

IV. 결론 및 제언

간호 대학생 학년별 스트레스 근원과 대처방식 파악 결과,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게 나왔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근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 여자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남자 간호 대학생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스트레스 유발 근원에 대한 빠른 파악, 개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 대처방식에 대한 다양한 하위영역 분류, 파악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다양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대학생의 학년 별 스트레스 근원에 따른 대처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